朝鮮日報
夕刊 八日(日)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人 方應謨

叛軍마드리드市入城
西國首都遂陷落
七日「리스본」市放送局의 放送
交通省에 白旗揭揚

【리스본七日發同盟通信】리스본市放送局의 放送에 依하면 叛軍은 지난七日 午前十時四十分 마침내 西班牙首都마드리드市에 入城하엿다。

【리스본七日發同盟】 리스본放送局 七日 午後六時三十分發表
마드리드交通省에는 마침내 白旗가 揭揚되엿다

西人民戰線政府
발렌시야市로遷都
政府形勢挽回策協議

【발렌시야七日發同盟】 西班牙政府는 七日발렌시야市에 移轉 베니카로宮을 本據로 活動을 開始하엿다 午後는 遷都以來 最初閣議를 開催하고 形勢挽回策에 對하야 協議하엿다 (以上號外再錄)

血과砂의阿修羅巷化한西班牙의首都마드리드市

社說
마드리드市陷落說
人民戰線派大勢不利

一

리스본 七日發 電報에 依하면 同地放送局에서는 七日 午前七時半 西班牙革命軍이 마침내 首都에 入城하야 交通省에서는 白旗가 飜揚한다고 放送하얏다고 한다。리스본市는 叛軍을 援助하는 葡萄牙의首都이니만큼 精確한 報道라고 確信할수는 업다하드래도、마드리드 七日發電에 依하면 首都가 完全히 叛軍에게 包圍되엇스므로 六日夜半 政府는 발렌시아市로 옴기고 形勢挽回策을 協議한다 하니 아주 陷落은 안되엇다 할지라도 陷落이 時間問題인것만은 事實인듯하다。數日以來 叛軍이 首都를 肉薄하야 市中을 爆擊하기 始作한 結果 市內는 宛然 阿修羅의 巷으로 化하엿다는 報道와 아울러 생각할때 우리는 叛軍에 依한 西國 首都陷落은 事實이라 미더도 大過업슬것 갓다。

二

回顧하면 八月十八日 프랑코將軍의 指揮로 西領 모록코의 一角에서 이르킨 革命의 烽火는 即日로 西班牙 本國의 津津浦浦를 風靡하야 그形勢 數日內에 政府를 顚覆할듯이 보이엇스나 政府의 措處 또한 機敏하엿기 때문에 이것을 隨處에서 擊退하고 그 形勢는 도리혀 逆轉하야 政府軍에 有利한바 잇섯다。이것은 叛軍이 主로 地主、軍閥을 背景하얏슴에 反하야 政府는 勞働者、農民을 背景으로한 때문이엇스니 前者가 戰爭의 技術과 金力에 잇서서 勝함에 反하야 後者는 團結과 訓練이 勝한 때문이엇섯다。이리하야 此國의 革命은 一種 階級鬪爭的 形態를 帶하고 一進一退하얏섯는데 이것을 본 歐洲諸國은모다 革命에 結果如何를 自國의利害와 關聯視하야 佛蘇兩國은政府軍을 獨伊葡三國은 叛軍을 後援하야 西國革命은 進하야 國際的 對立을 示하야다。形勢 이리되매 英佛兩國은 革命이 擴大되지 안케하고저 內政不干涉委員會를 開催하얏스나 表面上協定뿐이오 內容으로는 依然 後援을 繼續하고 伊太利가튼 나라는 西國 島嶼까지 占領하게되어 事實上 이案은 成果되지 못하고 今日에 至한것이다。따라 이번 革命軍이 優勢하다 함은 獨伊葡의 後援이 佛蘇의 그것보다 컷다함을 示함에 不過하다。

三

叛軍이 首都를 陷落시켯스니 大槪의 境遇에는 이것으로써 革命軍의 勝利라 할수잇다。그뿐아니라 獨伊等 兩ファッショ國家는 人民戰線國家에 對抗하는 意味에서 首都陷落을 期하야 革命政府를 承認하리라 하니 革命軍의 勝利는 決定的이다。그러나 國際聯盟의 規約에는 武力으로써 樹立한 政府는 承認치 안는것을 原則으로하고 잇다。그럼으로 國際聯盟의 加盟國인 英佛兩國은 이것을 承認치 안을것이 事實이다。또西班牙政府로 보드래도 비록 마드리드를 消失하다 하드래도 발렌시아에 依然한 政府가 存在한 以上 이제 곳 政府가 崩壞되엇다고 볼수 업다。特히 발렌시아를 中心한 海岸地方은 人民戰線派의 中心地요 海岸을 通하야 武器、糧食等 얼마든지 貿易할길이 잇기 때문에 容易히 占領되지 안케 되엇다。그럼으로 西班牙政府는 法理上으로나 實際上으로나 今後 相當한 期間 存續할것이니 兩者間의 對立은 즉시 解消되엇다 할수업다。

四

그러나 兩者의 背景勢力을 보면 叛軍에 對하야는 獨伊가 積極的으로 後援함에 對하야 政府軍에 對하야는 蘇聯만이 積極的이요 佛國等은 傍觀的態度니 이革命과 파쇼對人民戰線派의 勢力如何로 좌우될것이다。그러므로 이것을 契機로 國際戰爭이 勃發할 念慮가 업는바 아니나 英、佛等 國家가 中立을 取하라하므로 結局 獨伊對 蘇聯의 內面的 對立으로 畢竟 叛軍의 勝利로 歸하지 안을가。世界의大勢가 이러한지라 西班牙인들어찌이例를 깨트릴것인가。

西叛軍首都陷落

叛軍軍閥에 西班牙政府는 아나르코·산디칼리스트派와 提携하야 戰時內閣을 組織하는 一方 義勇軍을 總動員하야 前後旬日間 首都防衛에 死力을다하엿스나 叛軍猛擊에 支持할수 업서 마침내 七日午前十時 首都를 叛軍에 맛기게되엿다 이에앞서 六日 발렌시아市로遷都한 人民戰線政府는 베니카로宮을 本據로 活動을 開始하야 遷都以來 最初의閣議를 開催하고 形勢挽回策을 協議하고잇다

루統領再選

루즈벨트냐 랜든이냐? 民主黨이냐 共和黨이냐? 米國政權의 今後四個年間의 主人公을 決定할 大統領選擧戰은 마침내 十一月三日에 開始되엿다 開票結果에 依하면 一般이 豫想한 바와가티 三對一의 壓倒的多數로 루즈벨트大統領의 再選이 確定되엇스며 上下兩院의 議員改選에 잇서서도 民主黨이 空前의 勝利를 博하야 上院定員九十六人中七十五人 下院四百三十五人中 三三四라는 壓倒的多數를 占領하게되어 文字그대로 民主黨全盛時代를 約束받게되엿다

潛艦制限案調印

倫敦海軍條約第四編潛水艦使用制限條項은 一九三〇年倫敦軍縮會議當時 人道上問題로 規定하엿든것이데 同規定은 締約國全部가 參加키로되여섯스나 佛伊兩國만이 參加치안코 今日까지 加入手續을 保留하여오다가 今回日英米外 佛伊兩國도 加入하게 되여 마츰내 六日 英國外務省에서 右記議定書에 依한 各國政府代表가 調印을完了하게되엿다 右條約은 一個의 敎書의形式으로 作成한것인데 本年末으로써 倫敦條約은 失効되나 이것으로써 潛水艦使用制限만은 無期限으로効力을 存續하게 엿다

商埠地閉鎖說

國民政府는 民國成立以來 自行的으로 開放하여온 全國商埠地 三十一個所中 十一의 商埠地를 閉鎖하기로 決定하고 以後부터 外國人의 來往居住及營業을 禁止하기로 決定하고 不日內에 이에 對한 法令을 公表하기로되엿다 한다 今回에 取消키로 決定한 商埠地는 平綏線의 歸化包頭 膠濟線의 周村 濰縣 津浦線의 蚌埠 徐州 隴海線의 海州 滬寧線의 無錫 常德 其他 龍口 湘潭等이라하는데 但國民政府當局은 右報道를否認하고잇다

米海員罷業

太平洋岸에서 勃發된 海員罷業은 마침내 大西洋岸으로 波及하야 紐育港에서도 商船十八隻이 同情罷業에 參加하엿다 그리하야 大西洋沿岸各港의 罷業參加人員은 五千名 停船 五十九隻을 算하게되엿는데 멕시코灣과 스톤港에서도 海員二千人이 同情罷業에 參加하야 商船五隻이 停船되엿다 이것으로 太平洋岸의 八十七隻을 合하면 停船總數百四十八隻 全國罷業參加總人員도 十萬에 達하게되엿다

墺一黨專制確立

슈슈닉首相은 三日 內閣改造를 斷行하야 基督敎社會黨의 閣僚를 새로任命하야 一黨專制를 確立하게되엿다 이結果護國戰線系 政治家는 完全勢力을 喪失하고 일쪽 同國의 首領으로 副總理의 要職에서 敏腕을 날리든 슈타렘베르그公도 護國團의 強制解散과 今回의 一黨專制確立으로 墺政界로부터 完全 除外되게되엿다

西政府、어데까지
叛軍과抗爭繼續
左翼의牙城카타로니아와協同

【발렌시아七日發同盟】 카바레로首相以下閣僚는 七日 自動車로 마드리드에서 발렌시아에到着하고 即時 第一次閣議를 開하엿다 마드리드防衛委員會와는 끈치업시 電話로 連絡하야 對策을 決定할方針인데 時期를보아 다시左翼의牙城 발세로나地方카탈로니아自治州政廳과 共同戰線을 베프러 어데까지 叛軍과의 抗爭을繼續하리라고 觀測된다

英政府叛軍에 軍事的砲擊을要請

【倫敦六日發同盟】西班牙首都마드리드市는 바야흐로 叛軍의砲擊下에 大修羅場으로 化하엿다 英國政府는 戰爭地區에 殘留하는 自國民을 保護하는 見地에서 六日 叛軍에 對하야 『鄭重하고強硬히』砲擊을 純粹한軍事的目標에限定하기를要求하엿다 한다

西大使英外相과密議

【倫敦七日發同盟】倫敦駐箚西班牙大使데、아스카라데氏는 七日午前蒼惶히 英國外務省에 이든外相을 訪問하야 凡半時間동안 密議를하엿다

政府軍다시反擊
마드리드防衛委員長이確言

【마드리드七日發同盟】마드리드防衛委員會는 발렌시아政府本部와連絡下에 形勢挽回의 必死的努力을繼續하고잇는데 戰線의一部에는 叛軍을擊退하야 斷然追擊作戰에 나가고잇다 防衛委員會委員長미아하將軍은 七日深更政府軍의 카라반첼市에서의勝利를確言하야 左와如히 言明하엿다

政府所屬民軍은 七日午後 叛軍의一部를 카라반첼、바보市에서擊退하고 四키로後方의 카라반첼、알콘市까지 後退케하엿는데 余는 마드리드市의情勢에 關하야 極히樂觀하고잇다 政府軍은 自己를防禦함에 그치지안코 敵軍을擊退하고잇는 事實이 判明되엿다 遷都발렌시아市에 잇는 카바레로首相으로부터 電話로戰況을照會하엿슴으로 勝報를傳한바이다

마드리드市
血의砂의鬪爭場化한
各處猛烈한白兵戰展開

【마드리드七日發同盟】叛軍의首都入城에 猛烈히 活躍하고잇는 것은 무아部隊로 七日進擊命令下에 메나部隊는 비리아베르데市에서 바르部隊는 카라반첼에서 가스테론部隊는 간바멘드에서 一齊히 行動을開始하야 市의南方郊外地區에 構築한 砲兵陣地에서 猛烈한 掩護射擊下에 午後一時半발서 세빌리아、톨레도、바리에갓스의 三橋를건너 市의西道마레사니레스河를 突破하야 首都의 先入에 成功하엿다 叛軍의 砲彈은 발렌시아方面에 向하야 出發驛인 메데이 오라이안(驛)驛附近及 마드리드、발렌시아間의 街道에 落下하야 避難中의 婦女子數千名은 悲鳴을올니며 凄慘한 光景을 나타내고잇다 마드리드市內는 叛軍의 入城으로곳곳에 激烈한 市街戰을 展開하고 더욱이 市內의 人口가장稠密한 라비바에스附近에 銃砲彈이飛來하야 民家多數를 破壞하고 死傷者가 續出하고잇다 政府軍은 이에對抗하야 砲擊을 加하고잇는데 叛軍의 砲火는 도리켜 政府軍의 砲彈에負傷하는 悲慘한 光景을 나타내고잇다 政府軍所屬 民軍은 部隊로서의 戰鬪力은업고 個個로 抵抗을 試하고잇스나 必死의 政勢는 相當하야 市의 西南端인 포레라다만스廣場에서는 叛軍과의 間에 壯烈한 白兵戰을演出하고잇다 叛軍은 아주 市의一部를 占據하고잇는데 그總勢는 四個聯團五萬名으로 六個部隊에分하야 各隊가 市內各部를 分擔하야 政府軍의 殲滅을 企圖하고 잇고 一方 空中에서는 叛軍의爆擊機六臺가 市內에 爆彈을 投下하야 政府軍民軍의必死의守備를 爆擊함에 努力하고잇다 政府軍作戰部長 보사스將軍은目下 다란코에 本部를두고形勢의挽回에 努力하고잇는데 結局叛軍은 八日中에 完全히 全市를占據할듯하다

暗黑市街서兩軍激戰

【마드리드七日發同盟】마드리드攻防戰第一日은 日沒과함께 全市의 店舖는 閉店하고 市內는 暗黑化하엿다 트레드橋方面에서는 深夜에드러가서도 激戰이展開되는 模樣인데 銃火가 어둠을뚤코 市의中心에서 보이고잇다

蘇、赤의廣場에서 革命記念祭

【莫斯科七日發同盟】十月革命第十九周年을마저 七日正午 赤廣場에서는 恒例의赤軍將校勞働者의大分列行進이잇고 國防人民委員보로시로프元帥는 激勵의인사를述하얏다 中央觀覽席에는 스타린黨書記長을비롯하야 모로토프、카리닌、가가노비치、오르조니기제氏等 政治家도 얼굴을나타냇는데 今次의스타린新憲法이 中心테마이엿다

日本內地米買替

【東京電話同盟】農林省七日午後發表=昭和十一年十一月農林省告示第三百七十七號로서買替를實施한 日本內地米買入(豫定數量五十萬石)의 成績은 合計四十一萬三百五十二石二斗이다

人事·集會

▲金仁三氏(延吉公益會社長)上京 入事次來社

八面錄

◇ 攻防 모다 莊嚴한것을 傳하든 마드리드市街戰은 畢竟 叛軍의 入城을 報道。
◇ 革命의 巷에서의 報道라、健報라 밋기는 일르다 大勢革命軍에 有利한것만은 事實。
◇ 한편 援軍은 積極、따편 援軍은 消極이나、消極이 積極에 질것은 定한理致。
◇ 積極으로 나가다 國際戰爭을 이르킬가 우려하는 佛國의 心情도 그려러니와、
◇ 名譽의 孤立을 자랑하는 英國의 不干涉政策은 뇌풀사나위。
◇ 革命의 祝盃에 陶醉한 모스코兩班들、西都 上空에 白旗가 날린다는 報道를 듯고 어떠케 생각하노。
◇ 今後 高普設立에는 百萬圓의 財團法人이 必要하다고。
◇ 四十萬、六十萬의 現在 高普도 훌륭한 成績을 내거든 何必 今後부터는 百萬圓을 모아노라함은 무슨 理由?
◇ 그야말로 學校의 資本主義化?

今日本紙四面

日曜氣配

◇期米=買上好成績으로 當限은 踏物氣配 一、二〇錢高豫想이나 先限은 別로 影響업고 氣配手強
◇株式=日中交涉 好轉豫想으로 雜株의 擇擇買氣旺盛 目先氣配小强

大新	七一、八〇
東新	一三九、二〇
鐘新	一七八、〇〇
日産	八四、〇〇

戰禍를防止키爲하야
外交團에서調停
叛軍에政府軍의首都不戰引渡를折衝하고
捕虜人質의交換等을

【마드리드七日發同盟】叛軍이首都를 今的으로 占據할것은 時間問題로 되여잇는데 마드리드市에잇는 外交團은 될수잇는대로 戰禍를防止키爲하야 政府叛軍兩軍間에 調停에 着手하엿다고 한다 調停條件은 左와如하다

一、政府軍의 首都防衛는거이希望이업슴으로 叛軍에게 此를 引渡할
一、政府叛軍兩軍은 相互捕虜人質을 交換할
一、叛軍은 裁判에依치안코 政府所屬員을 處刑乃至報復行爲를取치아니할

重役도意外로잘한다
숨은才操로 不意에出世

偉人에게 招待를 바다 感하는바이지만 主人側이좀 明瞭치 못하거나 幹事니 中間에잇는사람이 精神업시일하는것을볼때 더욱이座興하나할수업는無藝大食의 存在때문에 一座의興을 죽이는것은 퍽조치안흔것이다。東京市小石川區大塚町二十五番地 大東社에서는『宴會即席座興かくし藝大全』이라는 四六版箱入 二百八十四頁의 册을發行하엿는데 이册은언제나 쓸수잇게 모던座興 더센스座興 笑話 漫語 小話 五分間演說 即席挨拶等 모다 이길에對하야 잘準備하엿스니 이것을한번 죽읽어보아두면 우리가 招待하거나 招待를바다서 主人이되거나 손님이되거나 조곰도서슴지안코 應酬할수가잇슬것이다 同册는今回發賣記念으로 百部限하야 定價一圓五十錢을 特價一圓으로 前記大東社에서販賣하므로 代金은 替本揚로送册한다

海陸物皮物鳥獸藥種
果物賣買委托販賣業
東大門商會
電話光二一六八

朝報案內
採用 食料品販賣員有給經驗者數名小店員十五歲十八歲希望者本人來談 京城府北米倉町一〇〇ビル東亞配給商會

そろばん下手では出世が出來ぬ
新式速成 珠算獨習の秘訣
特價一圓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西六町 現代出版社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好職業
福榮本舖 大阪天王寺區寺田町

開城新蔘賣出開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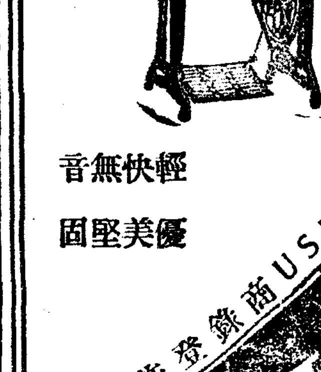
今秋以來紛糾中에잇든 開城人蔘統制問題난 這間 그販賣方針이 決定되여 如左한 公正價格으로 蔘을販賣함
一、地方註文은先金(送料加)又난代金引換에限함

新蔘價格表

	十五片	二十片	三十片	四十片	五十片	六十片	八十片	百片
特等	二五、六〇	二三、四〇	二二、九〇	二二、四〇	二一、九〇	二一、三〇	二〇、三〇	九、三〇
壹等	一七、七〇	一〇、六〇	一〇、三〇	九、九〇	九、三〇	八、八〇	七、八〇	六、七〇
貳等	一〇、五〇	九、九〇	九、四〇	九、〇〇	八、五〇	八、〇〇	七、四〇	六、三〇
參等	九、七〇	九、〇〇	八、五〇	八、一〇	七、七〇	七、一〇	六、八〇	五、九〇
等外	八、六〇	八、一〇	七、五〇	七、一〇	六、八〇	六、五〇	六、二〇	五、五〇

開城府北本町 開城蔘業振興會 電話四〇番·振替京城一〇八四四番
內地總販賣所 大阪市北區南扇町五番地(社團法人朝鮮物産協會內) 開城人蔘宣傳配給所 電話北六〇九九番·振替大阪八〇〇六番

參謀本部陸地測量部發行
五万分一地圖販賣元
京城公平町六〇(鍾路和信後) 東亞商會 主 金敎昌



特約店募集
輕快無音
優美堅固
特許登錄第28462號 USM商會
USミシン
大阪市本町六 USミシン商會

純國産

口臭를除去하고
齒牙의淸掃作用을하고
咀嚼에依해서唾液의分泌를促進하고
消化를도으며
씹어서齒齦을
健全케한다

十ケ入一函 五錢
四ケ入〃 二錢
お子様向 一錢

名古屋市中區北一色町深井
合名會社 伊藤製菓所

十九道溝에 共產軍 住民七十名拉去

村落掠奪、全洞放火를威脅

【咸興】칠일 도경찰부착전=장백현일대에서 무인지경과가티 조화를하야 약탈(掠奪) 방화(放火) 랍치(拉致)등을 하고잇는대 동북인민혁명군(東北人民革命軍) 김일성(金日成)의 일대백여명은 지난사일 오후열시경에 십구도구관방자(十九道溝官房子)에나타나서 촌락전체에서 약산배원의 현금을 빼아슨후 촌민칠십여명을 랍치(拉致)하야가는대 떠나갈때에 십구일에다시와서 촌락을전부불태워버릴타이니 피난하라고명령을나리엇다는대 주민들은모다다른곳으로 피난하노라고 대혼잡을이루고잇다

咸興聯隊出動 近日中大討伐

六日午後○○名出發

함남대안과 국경방면의 공산군의형세 자못위급한바 잇슴으로 함흥칠십사련대 미촌(米村)중위가 인솔한○○명은 륙일오후열한시 함흥역발렬차로 길주(吉州)경유 ○○으로향하야 출발하얏다 아마근일중 대토벌을 결행하리라고관측된다

旅客機墜落 日本人二名慘死

【모스코一七日發同盟】『쏘비엣트』와 독일의 공동경영인『델·루푸트』회사려객기는 연애냑고부좁프노종사와에 푸도미코푸』 기관사가 조종하야 일본명의 손님을태우고『케-닉히스벨그』를떠나모스코-는에서 구십키로되는곳에서 갑작이떠러저 탓든사람은 모다참사를하엿스며 손님중 북화태석유회사총무과장 고택각본(古澤覺本)씨와 동사원 월야안이(越野安二)씨가잇섯다 『쏘비엣트』정부에서는 곳조사원을임명하야 현지에급행케하엿는데원인은 불명이다

淸南學校의悲運

【淸州】과반 신사불참배문제로 상당한문제를 이르키엿든 청주읍청남학교(淸南學校)는 교사부지(敷地)문제로 일반의중대관심을끌고잇다 그자세한내용을듯건대 전기청남학교는 장로교회(長老敎會)계통의경영인학교인데 교사부지는 장로교게 미순회(美國宣敎會)의 소유인바 미순회에서는 그부지를 장로교회로양여하엿다 장로교회에서는 수년래숙안대로 현재 교회당을헐어버리고서 신축키로 되엿는바 지금에 와서는 현재 청남학교부지에 다신축키로 결정 하고 장로교에서는 청남학교에 대하야 퇴거하라고한다 장로교회경영인청남학교에대하야이와가튼사태로된것은 순전히감정문제인듯한데과반신사불참배문제로 십륙일간이나휴교처분을바덧슬때 장로교회와는전연소노를끈케되여 교회와는 일절관계치안케되엇다 이러한관계로 교회와 학교당국과는 사이가조치못하게되여 금반 이러한사태에 빠지게된 모양인데 오는이십칠일 청주에서 이문제로 순회의가 잇다는바 일반은 이회의에 주목을하고잇다 한다 청남학교는 지금교주(校主)를 물색중인데 지금경영에대하여도 대난관에 처하여잇는 이즈음철폐교설까지 잇다고 한다 청주사회에 큰문제로 상당히 오랜역사를가진 청남학교는 어대로가며이백여아동은 어지될것인가 일반은그귀추를 주목하고 잇다

怪!連絡船에腐爛屍

나종에알고보니朝鮮으로移葬해오는屍體

【下關電話同盟】칠일밤하관(下關)을 떠난 관부련락선(關釜連絡船)창경환(昌慶丸)에 시른 삼등선객의 수하물중 기리 두자 널비한자반이나 되는 나무궤속에서 아주추한 냄새가남으로 그배에타고 잇든하관서 특고계원이 이상히여이고 그궤짝을 떼여보엇든바 썩고 사지(四肢)가 떠러저잇는 남자의 시체를 신문지에 싸서 너어잇는것을 발견하고 곳그소유주를 조사하여본결과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면(慶北達城郡花園面)출생 신호시림전구동지이정(神戶市林田區東池尻町)에 거주하고 잇든 채청건(蔡淸健)의것으로 판명되엿다 그시체는 최근신호에서 병사한 그의 아버지채경달(蔡慶達)의것으로 고향에매장하려고 운반중의것으로판명되엿다

電管의爆發로 男妹三人重傷

七日達城郡東邊洞의慘事

【大邱】칠일오후三시반경 달성군성북면 동변동(達城郡城北面東邊洞)에서 동경산상회(東京山商會) 청부인 이등의평(伊藤義平)의 공사장에서 작업중 그부근에 놀고잇든 아이들이 작난으로 송전선(送電線)을 놀리다가 폭발되여 남매삼명이 모다중상을입고 방금도립병원에서 응급치료중이라는데 그 아이들 성명은 다음과가타고한다 東邊洞貝萬來長男龍(二) 長男 安會(三) 長女 圓濟(六)

全南運動協議會事件

第六回續行公判開廷

被告五十一名中三名病不出

"主義行動"을大體否認

【木浦】루보=치안유지법위반으로 검거되지 만이년팔개월만에 비로소 공판이 시작된 전남운동자협의회사건은 예정과가티지난륙일오후한시부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제일호법정에서 굴부(堀部)재판장주심과 제(堤)검사관여하에 제륙회공판이 개정되엿는데 피고오십일명중 삼명은병으로 출정치못하고 사십팔명이 출정하엿다고 방청석으로 피고들의가족과 친지들과 정사복경관으로 혼잡을이루엇다 정각이되자 피고오림택(吳琳鐸)부터 본격적으로 사실심리를 시작하엿다 재판장심리에 대하야 나는 본시합법적농민운동을 하엿든것이요 결코 공산주의하의적색농민운동이 아니엿다고 사건을 대체로 부인하얏스며 천덕운(千德云)은 공산주의를 공명하야그를연구하엿슬뿐이고 실지행동은 한일이 업다고사건을 부인하엿스며、윤가현(尹珂鉉) 마성만(馬成萬)은 금번사건의 전조서는 경찰서나 검사국에서 마음대로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시인하라고 십한×문(×問)을 함으로그×문에견대지못하야할수업시 『네!네!』한것이니 이사건은우리가만든 적색농민사건이아니오 그들이만든 백색(白色)농민사건이라고하야 처음경찰서에서 취조밧든 사정을말하야 일반청중으로하여금 신경을놀라게 하엿스며 재판장에게 대하야 사건전체가 이러하니 공정한심리와 관대한 처분을바란다고 사건내용을 말하엿다 오십일명이나되는 대량적피고의 심리는제륙회 공판까지에 이십오명의 심리를 마치고 오후오시에 폐정하엿는데 제칠회공판은 오는십삼일에 속개한다고한다

比할데업는 우리朝鮮의風土

廿餘個國두루두루구경한 延專 鄭寅燮氏歸來談

긔보=연희전문학교(延專)교수 정인섭(鄭寅燮)씨는 정말(丁抹)『코-펜하-겐』에서개최된 세계언어학대회(世界言語學大會)에출석하고서 영국、불란서、독일、기타등서이십여개국을 시찰하고 칠일오후일곱시이십오분에 경성에 무사히 도라왓다 정교수는 마중나간긔자에게 시찰감상담을 다음과가티 이야기하엿다 희랍(希臘)과 『로-마』를 보앗고 애급(埃及)과 인도(印度)에도보앗는데 인류의 세력범위는 류동(流動)되는것이 사실인 모양입디다 각국의 풍토(風土)를 보건대 우리조선의 풍토는 참으로 비할데업시 조흔곳으로 생각됩디다 구라파에서도 서서(瑞西)의 경치는 과연 아름답습디다 서구(西歐)에서는『스포-츠』는 문화인(文化人)의 상식인 동시에 생활의 일부분임을 알엇습니다 우리도 만히장려해야되겟습니다

列車와電車속에서 貴金屬專門竊取

犯行廿餘回에被害額三千餘圓

一流소매치기選手鍾路署에被捉

경부선(京釜線)긔차와 서울전차안을 활동무대로삼고 금시계와 귀금속품을훔친 소매치기선수가 칠일밤에 종로경찰서에 붓잡혓다 범인은 충남아산군온양면명암리(牙山郡溫陽面明岩里)사는 전과이범 채수봉(蔡壽鳳)(三一)으로 그는 지난 팔월상순에 경성형무소에서 나온뒤로 경부선렬차를타고 래왕하면서 승객들의 귀금속과 양복류를 훔치고 시내 전차간에서 현금과귀금속류를 훔쳣는데 전후합계이십수건에 피해액이 삼천오백원가량이나 된다한다 최근에는 지난달십사일에종로삼정목 정류장부근에서 시내락원정(樂園町)일백팔십륙번지 문승우(文承宇)라는 사람의 양복조끼에 너어가지고잇는 십팔금회중시계 한개와 금시계줄한개와 시계줄에 달린 십원자리금화(金貨)한개등 합계 일백팔십원어치를 훔첫다한다 칠일밤에 동대문으로 가는전차안에서 종로경찰서 덕부(德富) 김(金)두형사에게 붓잡힌것이다

精神作興週間

第三日 敬老愛幼日

정신작흥주간의 제삼일인구일은 경로애유일(敬老愛幼日)인데 첫째、각교화단체에서 경로등애관한 시설과개최를 할일 둘째、전차 승합자동차 또는다수의 사람이 집합한 장소에서는늙은이와 어린이를 먼저알도록 주의하야경로애유의실을다할일 셋째、각가정에서는 특히 경로애유의 길을다할일 넷째、각유치원에서는 애유에관한시설을 할일 다섯재、학우영화회(學友映畵會)에서유아를위하야 영화회를개최할일 여섯재、방송강연등의 순서를진행할터이다

사람무는개

『세파드』-시내관동정(館洞町)오번지의오호 김중집(金仲集)의소유구로『세파드』는 칠일오후여섯시에 그동리 사번지의일백사십호에 사는로석인(盧錫仁)의손자 히진(熙鎭)이라는 아홉살먹은 아이의 허리를 무러서 상처를 내엿다 그근방사람들은 주의해야 하겟다

(寫眞은、專門校蹴球戰光景)

醫專勝捷 法專은決勝에

齒專과延長끄테

朝鮮專門學校體育聯盟主催의第十回蹴球大會第一日은 八日午前九時半부터 京城運動場에서 高商 高工 高農 法專 醫專 齒專等의 六個校七十二名選手의入場式이잇서 當番校高商校長岩佐氏의 開會辭가 잇슨다음 昨年度優勝校齒專으로부터 優勝旗返還이잇섯고 選手一同을代表하야 京城高商主將道乙生君의 宣誓文朗讀이잇섯다 그리고 이날의第一回戰인 法專對高商戰으로 大會의幕은 열린바 夕刊마감까지의 各校戰況은 다음과갓다

◇第一回戰

法專1 高商0 【前1…0 後0…0】

【第一次】 同日午前十時二十分부터 李裕영(主) 鄭龍洙 金昌洙(線)三氏審判下에 高商先蹴으로 開始한바 前半二十一分에 法專 RW許公勳君의『헤딩』으로一點을 어더氣勢를올린後 兩軍一進一退之勢로 後半戰에 드러갓스나 得點업시 結局一對零으로法專軍得勝하야 準決勝에 드러가 高工軍과 對戰케되엿다 (께임時間七十分)

	GK	RF	LF	RH	CH	LH	RW	RI	CF	LI	LW
【高商】	朱明裕	諸萬濟	林炳旲	朱在明	諸乙生	金應[illegible]	柳判燮	南寅浩	李英敏	高亨元	崔祈燮
【法專】	金鍾天	諸德烈	朴潤偉	金容泰	李相洙	李斗柄	許公勳	朱明[illegible]	洪性澤	李相[illegible]	尹鍾燮

	得點	門蹴	隅蹴	自由
【高商】 前	0	5	1	7
後	0	6	0	4
計	0	11	1	11
【法專】 前	1	3	1	4
後	0	3	0	4
計	1	6	1	8

醫專1 齒專0 【前0…0、後0…0延1…0】

【第二次】 同日午前十一時五十分부터 李永善(主)李裕洛、鄭龍洙(線)三氏審判下에 醫專先蹴으로 開戰한바 前半戰은 兩軍『씨-소-』게임을 演하여 得點업시 마치고 後半에 드러가 亦是無得點으로延長戰에 드러가 七分에 醫專隅蹴를 利하야 LW崔鎭恒君의『헤딩』으로 貴重한 一點을너허 宿敵齒專을 물리치니 醫專軍準決勝戰에 드러갓다

	GK	RF	LF	RH	CH	LH	RW	RI	CF	LI	LW
【醫專】	沈相雲	李春益	朱永在	李承顔	金泰煥	姜東秀	李宰燮	張三龍	金東讚	曹炳鎬	崔鎭恒
【齒專】	張元仁	金漢慶	諸毅鉉	申永麟	吳在仁	尹龍[illegible]	朴永俊	柳致一	金明煥	金鎭格	鄭煉模

	得點	門蹴	隅蹴	自由
【齒專】 前	0	5	0	2
後	0	5	0	3
延	0	5	3	2
計	0	12	3	7
【醫專】 前	0	3	1	9
後	0	3	1	6
延	1	6	1	4
計	1	12	3	19

◇準決勝戰

法專2 高工1 【前2…1、後0…0】

【第三次】 同日午後一時四十四分부터 法專戰은 鄭龍洙(主) 金忠鉉、李容一(線)三氏審判下에 法專先蹴으로 開戰된바 結局二對一로 法專이이겨 決勝戰에 드러갓다

	GK	RF	LF	RH	CH	LH	RW	RI	CF	LI	LW
【高工】	吳信燮	林容燮	禹範植	金熙春	吳憲煥	尹錝欽	金義極	金相殷	金亨周	黃起龍	林大奎
【法專】	金鍾天	諸德烈	朴潤偉	金容泰	李相洙	李斗柄	許公勳	朱明[illegible]	洪性澤	李相[illegible]	尹鍾燮

	得點	門蹴	隅蹴	自由
【法專】 前	2	1	3	2
後	0	2	2	2
計	2	3	5	4
【高工】 前	1	7	0	1
後	0	11	2	2
計	1	18	2	3

少年對校庭球 普成優勝

善隣決勝에敗退

朝新主催의 第一回少年對校軟式庭球大會는 八日午前十時半부터 京城運動場『코-트』에서 普成 養正 啓星 二高 道商 善隣 仁商 京商等의 八個校가參加한가운데 開始된바 다음과가티 戰績으로 普成軍이 優勝하엿다

◇第一回戰

【養正】勝 【京商】
○李技善 金晉漢 3…0 兒島 內田×
○李鴻麒 白永哲 3…1 山野 川原×
○秋義敦 梁南錫 3…0 豊田 坂野×

【普成】勝 【二高】
○鄭雲詔 尹讚榮 3…0 申英敏 金亨洞×
×崔在明 崔熙達 0…3 李鎬俊 金昌濟○
×徐昌龍 宋相根 2…3 權重烈 咸鍾洛○
(第二라운드)
○鄭雲詔 尹讚榮 3…2 李鎬俊 金昌濟×
【第三라운드】
○鄭雲詔 尹讚榮 3…1 權重烈 咸鍾洛×

【道商】勝 【啓星】
○全璋煥 柴田 3…1 林昌燁 尹乙天×
○邊鎭源 金淳容 3…0 金春福 李永萬×
○朴振遠 鄭聖朝 3…0 李汶城 金壽哲×

仁商對善隣商業戰은 仁商이棄權하엿슴으로 善隣不戰、勝하엿다

◇準決勝戰

【養正】 【普成】勝
×李技善 金晉漢 1…4 鄭雲詔 尹讚榮○
×白永哲 李鴻麒 3…4 崔在明 崔熙達○
×秋義敦 梁南錫 3…4 徐昌龍 宋相根○

【道商】 【善隣】勝
○洪思民 柴田 4…3 李炯植 大原×
○朴振遠 鄭聖朝 4…2 金重根 李炳琇×
×邊鎭源 金淳容 0…4 孫日煥 朴寅夏○
【第二라운드】
×洪思民 柴田 0…4 孫日煥 朴寅夏○
【第三라운드】
×朴振遠 鄭聖朝 1…4 孫日煥 朴寅夏○

◇決勝戰

【普成】勝 【善隣】
鄭雲詔 尹讚榮 4…1 李炯植 李炳琇
崔在明 崔熙達 4…3 孫日煥 朴寅夏
徐昌龍 宋相根 4…0 金重根 大原

瀆職警官事件 兩名에體刑求刑

金基潮는十個月金炳旭은八個月

【平壤】현직경관독직사건의 피고김긔조(金基潮)외 네명에관한 제이회공판은 칠일오전열한시부터 평양지방법원 형사정에서개정하여심리를 필한후 대판(大阪)검사의 론고에드러가 피고들의 범죄사실은 어너모로보아도 려연한터이므로 김기조는백원을 뇌물로바든사실을 철두철미부인하지만 그당시인 십일월십팔일밤 김긔조의 집에서 그처의 양경을 하든 사람들중에서 현인한사실에 의하여 명백하다고 김긔조가부인하든 태도를 반박하고 다시 이사건은 사건자체가 그리큰사건은 아니라하나 현직경찰관들이 련좌한사실로보아 처단은 엄중히할것이라고하여 반도경찰계혁청을부르짓다 그리고이번 신의주경찰서에서취한처치는 반도경찰계정화를위하여 그수고가컷다고 결론지은후 다음과가티 구형하고 변호인 삼정(三井) 본도(本島) 최정묵(崔鼎默) 횡전(橫田) 주간흠(朱幹欽)등 변호인들이 순차로 변론을 계속하기로되엿다

◇求刑

▲金長鐘(橫領贈賄)懲役一年▲李承年(贈賄)罰金八十圓▲金炳珠(贈賄)罰金百圓▲金炳旭(收賄)懲役八個月(賄賂金百圓追徵)▲金基潮(收賄)懲役十個月(賄賂金百圓追徵)

自動車正面衝突

八日臥龍町路上에서

팔일 오전 열시십분에 시내『광화문택시』운전수 최병두(崔炳斗)(三一)는 자동차를 운전하야 시내와룡정(臥龍町) 십삼번지압 큰길을 지내가다가 시내『히까리써비스』운전수 박문식(朴文植)(一九)이 운전해가든 화물자동차에 정면충돌이되여『헤드라이트』와 『휀더』의 일부분을 파손당하엿다 손해는 십오원가량 이라한다

鐵物窃盜逮捕

팔일아춤 본정서에인치된 고양군독도면(高陽郡纛島面)출생으로 주소가일정치못한 전과삼범 류소성(柳小成)(三二)은 지난달십이일 영등포(永登浦)룡산공작주식회사(龍山工作株式會社)창고에가 만히 드러가서 약사십원가량의 철물을 훔친것을비롯하야 그후 삼사차나 훔처서 모다 유흥에 소비하엿다는데 피해액은 약이백원가량이라고한다

麻雀賭博嫌疑로 百餘名一時被檢

江界邑內에大檢擧風

【江界】"마-작"도박사건으로 강계경찰서에서는 지난일일새벽부터 비상한활동을 개시한이래 백여명인원을 검거취조중인데아직 당국에서 정식발표가 업슴으로 자세한내용은 알수업스나 탐문한바에의하면 피검거자중 도박상습자도잇스니 그중에는 사회유력가 공직자를 비롯하야관공서원 또는 회사상점에적을둔 신사계급이불이 대다수를 점령한모양이며 아직도취조중에잇는자도 십여명에 달하는 모양이다 이가티 대대적 검거를 단행케된사실을 드르면 지난일일새벽네시경 강계읍동부동(東部洞)명월관(明月館)이란료리점안방에서 마-작을노름하고잇든 현행범덕거수명을검거하야 이를시작한결과 과거수개월동안 마-작한 사람대부분을 검거하야 그행위에잇서서 도박여부를 실취조중이라는데 본사건은 화제거리로 일반은 당국의처치를 주목중이라한다

天氣予報

警報 今夜는晴 明日은晴 一時曇 京城은全鮮도갓다

氣象特報=十一月八日午前九時京城測候所發表=京城은

昨日最高	十一度四
同 最低	三度五
今朝最低	零下零度一
今日正午	六度五

沿海部 特報한 十一號는 모다 解除하엿다

뽈고다의언덕에서 十字架에못박힌基督에게 침밴든男子의 이것은넘어도眞 呪스런 世紀의大悲劇
沈默의凱旋
큰나드페아이어드 一生의名技
突然九日封切 團成社

平壤籠球리그

第三、四兩日戰績

【平壤】崇實專門學校主催와 本社平壤支局後援으로 開催中인第六回全平壤籠球聯盟戰第三日、第四日의 戰跡은 다음과갓다

◇第三日戰績
崇商A 65(33 32…1 6)7 平農
平籠 41(26 15…16 16)32 崇實B
崇實A 93(24 15…7 41)21 光成B
光成A 26(19 7…4 5)9 崇商B

第四日戰績
光成A 32(10 22…9 12)21 崇實B
光成B 16(4 12…3 2)5 崇商B
崇實A 71(36 35…0 4)4 平農
崇商A 48(25 23…22 10)32 西洋人

運動界人事

▲金正淵君(올림픽選手·明大氷上部主將) 八日入京、武橋町八五松屋旅館에投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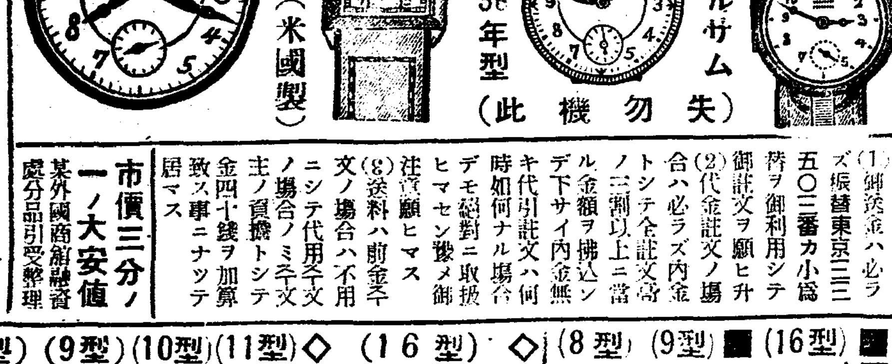
明日의運動

▲蹴球=專門校蹴球第二日決勝戰은 午後二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入場無料)
▲籠球=YMCA主催籠球聯盟戰第三日 中東對道商(午後六時半)、二高對公民(同七時廿分)、培材對養正(同八時十分)、[illegible]倶(同九時)以上鍾路青年會室內코-트(入場料十錢均一)

大景品附歲暮大賣出!

▲大景品內譯!
A 註文高五拾圓以上トランク(行李カバン)又ハ手提カバン一點宛無代進呈
B 註文高三十圓以上純毛セータ一枚宛
C 註文高十圓以上皮製手袋一組宛
D 註文高五圓以上모도리一枚宛
E 註文高一圓以上各時計付屬品宛

15ケ年保險付いつも正しいウオルサム時計



時計のウオルサム (瑞西製)
時間の正確と流行の 瑞西製・36年型
正確無比のエルジン(米國製)
(此機勿失)

御注文の際
(1)御送金ハ必ラズ振替東京三三五〇三番カ小爲替ヲ御利用シテ御註文ヲ願ヒ升
(2)代金註文ノ場合ハ必ラズ內金トシテ全註文高ノ三割以上ニ當ル金額ヲ拂込ンデ下サイ內金無キ代引註文ハ何時如何ナル場合デモ絕對ニ取扱ヒマセン豫メ御注意願ヒマス
(3)送料ハ前金ノ場合ハ不用ニシテ代用註文ノ場合ノミ註文主ノ負擔トシテ金四十錢ヲ加算致ス事ニナッテ居マス

市價三分ノ一ノ大安値
某外國商館融通處分品引受整理

◎謹告!
地方同業者又ハ夜學・靑年團體・農民團體・註文에限하야는 大割引을 하야드림니다 詳細한것은葉書로照會하시요

■正十八金側懷中(エルジン・ウォルサム)(16型) イ〜ヲ [illegible]
■正十八金側懷中(瑞西製) イ〜ヌ [illegible]
■正十八金側腕卷(瑞西製)(16型)(9型)(8型) [illegible]
◇十八金HK懷中(エルジン・ウォルサム)(16型) [illegible]
◇十八金HK腕卷(瑞西製)(11型)(10型)(9型)(8型) [illegible]
◇十八金HK懷中(瑞西製)(16型) [illegible]
◎クローム側懷中(エルジン・ウォルサム)(16型) イ〜カ [illegible]
◎クローム側懷中(瑞西製)(16型) イ〜ヌ [illegible]
◎クローム側腕卷(瑞西製)(11型)(10型)(9型)(8型) [illegible]
◎クローム側懷中(シーマ)(16型) [illegible]

クラウン工業所時計部
東京市向島區吾嬬町東三ノ一六
振替東京三三五〇三番

手提金庫界의大革命到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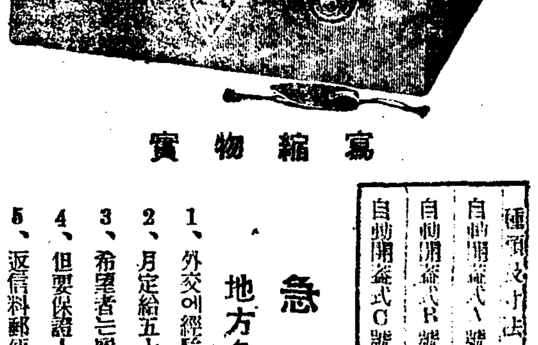
永年研究에依한理想的發明完成

보라!!! 手提金庫의覇王!! 最高級鋼鐵製의最新型堅牢新賣品!!

實物宣傳을爲하야一個月間特賣를斷行함 特賣期間中實費提供!!

(1)材料는 모다精選한特殊鋼鐵을使用하엿다
(2)全裝A號는[illegible] B號는[illegible]로되여잇다
(3)金庫의 暗號文字[illegible]
(4)前部의 핸들을右로돌리면 [illegible]
使用法!……
(1)前部의 핸들을 右로돌려서연다
(2)暗號文字는 各各指定文字에 맛는다
(3)열쇠구멍左로돌리면열쇠에걸리고右로돌리면버서진다
(4)警鈴轉向 [illegible]
(5)네지發鈴器
(6)金銀投入口

自動開蓋付器警報裝置



實物縮寫

種類及方法	橫幅	縱幅	高サ	重量	定價	特價
自動開蓋式A號	一尺二寸	八寸	五寸三分	一貫七百	四〇圓	一〇・〇〇
自動開蓋式B號	同	同	同	一貫六百	三五圓	八・五〇
自動開蓋式C號	同	同	同	一貫五百	三〇圓	七・五〇

急告!
地方各郡駐在社員募集
1、外交에經驗잇는人士
2、月定給五十圓부터一百五十圓까지
3、希望者는履歷書와寫眞을添付하야問議하시요
4、但要保證人二人以上
5、返信料郵便切手三錢一枚要

★送金及注文者의注意
●年末大賣出期間中(十二月末日限)一人當手提金庫四個以上注文하시는이의게는精巧舍製クローム側十型石入(市價十三圓品)腕卷一個式無代로進呈함! 別로一圓式을加算하야注文하시는분은金庫에貴店名을새여드림니다。特賣期間中에는先金또는代引을不拘코一圓二十五錢送料荷造費를注文高에加算하야注文하라。鐵道便은驛名及住所를詳細히記入하고運賃은着拂로함。但送金은振替東京三三五〇三番クラウン工業所로小爲替、切手만은二割增、內金업는注文은拒絕한다

東京市向島區吾嬬町東三丁目
振替東京三三五〇三番
クラウン工業所

創作童話

닭알도적

康承翰

어느곳에 바보도적놈하나이 잇섯는데 하루는 큼직한 자루를 둘러메고 무엇이던지 도적해오려고 나섯습니다。

때는 마츰 달밤이라 영농한 달빛아래 엉금엉금 걸어가는 제그림자가 땅에뵈는것이 보기싫허 견딜수가 업섯습니다。그래 도적놈은 궁리궁리하다가 조흔수를 하나 생각해내엿는데 조흔수는 다른것이아니라 길옆헤 무성한 수수밧으로 숨어서 가리라는 생각이엿습니다。그래서진작 도적놈은 냉큼 수수밧속으로 숨어드러가서·멀리 등불이 반짝반짝 뵈이는집으로 부지런히 걸엇습니다。만은 수수밧으로 지내가자니 발거름을 옮길때마다 몸에 스치는 수수닙소리가와스스 버스스하고 소리나서 그것도 무시무시하여 견딜수가 업섯습니다。그래도 꾹—참고 거러가다가 정 견딜수업스니까 이번에는 아모도 업고 아모소리도 나지안는 시냇가로 걸어갓습니다。길까에 도든 풀닙파리가 발길에 좀 채엿스나 그러케 큰소리는 나지안허서 그제야 도적은 마음을노코 길을걸을수 잇섯습니다。그런데 도적놈은 한참 거러가다가 흠칫놀랫습니다。왜 놀랫슬까요？달래 놀랜것이 아니라 물속에 제그림자비친것을 보앗기때문이엿습니다。시커먼 허겁으로 외얼굴을 싸매고 등에는 크다란 자루를 둘러메인 제가 저보기에도 착실히 무서웟든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곳으로 갈길이 업스니까 난처하게 되엿습니다。할수업시 도적놈은 무서운대로 시내물속에 비친는 제모양을 감금 보면서 어느집에까지 왓습니다。누구네 집인지도 분명히 알수업는 이집은 고요하고 모두 잠자는것 가텃습니다。그러나 제법 조심스럽게 도적질을 할세음으로 도적놈은 겹어매인그 집대문턱에서 안에 무슨소리가잇나 귀를 기우려 드러봣습니다。만은 집안은이야기소리하나 업시 잘들엇습니다。

「오냐！어젠 되엿다 오늘은 어쨋케 어쨋케, 이만큼 어떻을 천냥어치 만냥어치며 훔쳐가따누。」

하고 중얼거리며 빼꾸운 자루를 가지고 만히 훔쳐가든 흉내를 내보앗습니다

또 한들쪽을 향해서 크게 두팔을 벌려보앗습니다 [illegible] 허허허허 다치든

듯히 고쳐매고 옷을 앙큼하게 도두어입고서 담정을 슬쩍 넘어안으로 드러갓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크다란 장울쇠를 걸어둔 광문 두쪽이 선뜻눈에띄엿습니다。

「올지 저놈의 문만 열구 들어가면 금은보배 보물이 가뜩 업스면 돈이래두 갓뚝 잇겟지。그것두 업스면 쌀이래두 한두석잇겟지。그것두 업서서야 말이되나 맙이돼。」

하고 혼자스말도 나즈막이 말하며 광문압헤까지가 보앗스나 도적놈의 재조로는 단단히 채워저잇는 잠울쇠를 까딱도 하는수가업섯습니다。

「자 이잠울쇠를 열기만하면 금이던지 은이던지 무엇이던지 모두 내것인데 이러케 잠을쇠가 단단하니 어쩌담？」

하고 걱정을하는 바람에 안에서잠자든 이집 주인 영감이 깨엿습니다。그리고기츰을「에헴！」하고 크게햇습니다。기츰소리에 도적놈은 그만 정신을 일허버릴지경이엿습니다。그래서 한편구석에가서 찍소리 안하고 숨어버렷습니다。그랫더니 주인 영감님은 다시코를 드르렁 드르렁 끌며 잠이들엇습니다。

「옳 이제야 맘을 노앗다。조—」

하고 숨을 돌리고나서기웃기웃해보니까 바로 제엽헤 닭알상자가 하나 양전스럽게 노혀잇섯습니다。

「응 응 … 이건 웬떡이냐？웬 떡이야？」

도적놈은 너무 기가막히게 조와서 닭알을 한개차개 모두 어루만지며

「옹 이놈을 모두 깨우면 병아리 수무놈은 넉넉히 되렷다 그수무놈이 알을 모두 나호면 일년에 삼천알은 되겟지 그삼천알에서 나온 병아리가 매일 삼천알을 나흐면…… 앙？나는 나는 세계제일가는 부자가 되단말이야！」

혼자 벙싯벙싯웃으면서

「제일가는 부자가되면 그때는 내소원대로 고래등가튼기와집을 오백간이나 짓고 논밧을사고 아주막 뭘내게 되겟네。」

하고 혼자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시작하엿습니다。춤을추면서 큰부자될 생각을해보면 생각할사록신통한 꿈만가텃습니다。그러는새 도적놈이 모르게 밤이새고 동쪽하늘이 훤하게 밝아젓습니다。그래도 꼿모르고 벙긋거리며 춤추든 도적놈은 동쪽을보고 깜짝놀래 제정신을 도루채렷습니다。

「아 원 벌서 이러케되엿나？원 닭알도 가저가기 틀렷다 조곰만 더 잇스면 주인한테 들키겟다。에라 모르겟다 거름아 날살려라」

하고 훌쩍 담정을 넘어 뛰엿습니다。이제는 되엿거니하고 빈자루를메고 담정을 내려뛰니까

「이놈 누구냐？ 웅 도적놈이구나。」

하고 지내가던 칼찬순사가 도적놈의 등살미를 픽 웅켜쥐엿습니다。(끗)

대체 너이들은 기운이 하나도 업서보이니 웬일이냐？날세가 갑자이 치워저서 그런가보다 그러나 날이 추어지면 질사록 몸을 웅숭그리고 발말 떠러서야 되겟늬？ 이러케 기운어 숙고 몸이 오무러 드러가면 더 추어지는 법이다 살속을 흠러단이는 더운피가 잘통치못하게 몸을 웅숭그리니 안치울수 잇겟니！ 지금부터는 날이추어질사록 허리를펴고 가슴을 넓게하야 기운을 내여보자！그리고 감긔에 걸리지안토록 주의하고 몸을 튼튼케가지기로하자！학교에가서는 노는시간에 뛰놀지도안코 양지쪽을 차저서 조을고잇는 아이는 못난아이다 여러사람이 함께뛰놀때는 유쾌하게 남에게 지지안토록 뛰놀고 교실에 드러가서 공부할때는 열심히 공부하는것이다。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나 누님께 응석을하고 먹을것을졸너내여서 길거리에 물고 단이는 아이처럼 보기 실코 못난이는 업다 될수잇는대로 박갓테나가서나 집에 드러와서나 빼길일이 잇스면 빼기고 공손할데가 잇스면 공손히굴며 기운을 내여야 조흔사람이 된다。

曆

十一月九日(月) 陰丙子九月大(廿六日) 乙未·金·張·成

●祭祀裁衣動土上樑卯時開市納財安葬에宜함

●霜降二十二日(初九日)

●立冬七日(舊二十四日)

八日(日曜)

◇午後六時童話劇『王의금잔』 孔德少年會

◇同六時二五分 指揮 金容德 心田開發講演 明倫學院講師 安寅植

◇同七時三〇分 國民精神作興週間 (三) 中樞院參議 朴榮喆

◇同八時 歌曲 一、羽調頭 二、羽樂 三、環界樂 四、界樂 五、編 洋琴 金相淳 金玉花 金鳳仙 大笒 金永模 杖鼓 金一宇

◇同八時二〇分(東)管絃樂四重奏 一、第二作品二十一 차이코프스키作曲 第一樂章 아다지오 모데라-토·아싸이·페지·안단테 第二樂章 알레그로·쥬스토 第三樂章 안단테·마논·탄토 第四樂章 알레그로·콘모토 第一빠이올린 알렉산더-모기레후스키 비올라 에르네스트·토마시티 第二빠이올린 미하엘·쐐슬러 첼로 伊達三郞

◇同八時五五分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倂唱 가、短歌…어화靑春 나、唱劇調…沈淸歌 成錦花 鼓手 韓成俊

◇同一〇時 滿洲交換放送(滿洲로부터)

九日(月曜)

◇午後〇時五分 (東)吹奏樂 一、行進曲『스포-츠』포피-作曲 二、組曲『알사스의風景』마스네作曲 (가) 日曜日의아침 (나) 酒幕에서 (다) 菩提樹밋 (라) 日曜日의저녁 陸軍戶山學校軍樂隊 指揮樂長 岡田國一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新興織物이야기』 任哲宰

◇同三時一〇分 (東)歌謠時間 (第一放送에依함)

◇同六時 童話『떨어진돈』 金福鎭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繼續하야經濟解說 朝鮮日報 徐椿

◇同七時三〇分 國民精神作興週間 (四)中樞院參議 韓圭復

◇同八時 純正調오르간獨奏와獨唱 一、小前奏曲과遁走曲…빠하作曲 二、(가)聖譚曲『묘介아』에서 詠唱 내게유-발의琵琶이잇서드면…헨델作曲

◇同八時三〇分 라듸오·드라마『지는해』全一景 李光來作 配役 富豪…吳淳泳 메리…金慶善 大學生…高成允 秘書…成春鎬 멋이…柳芳 放送劇友會 演出 黃地玄 效果 效果班

◇同九時一〇分 孔明歌外 一、孔明歌 二、寧邊歌 三、긴난봉가 四、자진난봉가 李眞鳳 金玉葉

第一放送

◇午前十時三〇分(東) 家庭講座

◇午後零時五分(東) 吹奏樂

◇同二時(東) 婦人時間

◇同六時 라듸오 敬老會

◇七時三〇分 (東) 講演

◇同八時(東) 純正調오르간獨奏와獨唱

◇同八時三〇分(東) 俗曲

◇同八時四〇分(大) 人形淨瑠璃

十日(火曜)

◇午後零時五分 伽倻琴倂唱 一、短歌…大丈夫 二、唱劇調…春香傳中 科擧보는데 李祥奉 鼓手 池龍九

◇同一時十五分 衛生講演『冬節과皮膚』 醫博 吳元錫

◇同六時 어린이科學(無線電氣이야기) 韓德奉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經典解說 金德文

◇同七時三〇分國民精神作興週間 (五)社會敎育課長 金大羽

◇同八時 報念外 一、報念 二、유자백이 三、興打鈴 四、개고리打鈴 五、캐지나칭칭 吳翡翠 愼淑

◇同八時三五分 小說朗讀『모밀꽃필때』(李孝石作) 申孫吉

◇同九時五分 (東) 첼로獨奏 奏鳴曲 G長調 브레바-르作曲 아데레·크레만 피아노伴奏 나데디라·로히렌베르히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大)家庭講座

◇午後〇時五分(東) 레뷰-主題

◇同二時 常識講演

◇同六時 DK이야기會

◇同六時二五分 記念講演

◇同二時三〇分(東) 講演

◇同八時 [illegible]

◇同八時三〇分(東) 浪花節

◇同九時五分(東) 첼로獨奏

愛慾의彼岸 【145】

李光洙 作 金康穆 畵

문임은 딸이나라고도 해보앗다。그러나 다리가 말을 듯지아니햇다。은주에게 울고 매달리랴고도 해보앗다。그러나 은주의 뚱은 얼음가티 차고 쇠가티 단단하엿다。

「왜 이래？ 그래도 또 거짓야？」

하고는 떠밀첫다。

「사람 살리우」

하는 소리 한 마디를 마치내 문임은 힘껏 찌르노라고 햇다。그러나 다음 순간에 문임은 피를 뿜고 쓸어진 시체가 되엇다。

은주는 죽어넘어저서 사지의 경련이 다 끈어지기를 기다려서

「그에、참 말 한마디를 못해보고 죽어버리는구나。그때도 마즈막 순간에만은 참 마음이 나올줄만 알앗더니」

하고는 칼을 칼ㅅ집에 꼿아서 아까 칼이 잇던 속 주머니에 넛코 천천ㅅ길을향하고 빠른걸음으로 걸어나온다。

은주는 그 길로 김장로의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드렷다。얼마를 두드린 때에 잘못 들린 혜련이가 마루끄테 나서서

「누구요？」

하고 소리를 첫다。은주는 그것이 혜련의 음성인줄을 알앗다。그 음성을 들을때에 은주의 얼어던 피는 일시에 녹는듯하야 어깨가 축 처지고 고개가 숙으러짐을 깨달앗다。

「내야요。은주야요。」

하고 대답하는 은주의 목소리는 은주자신이 듯기에도 평상하엿다。

혜련이가 신을 끄는 소리가 나더니 빗장에 손을 대고는 또 한번、

「누구세요？」

하고 뭇는다。

「은주야요」

하고 은주는 제손으로 빗장을 잡그면서 묻는다。

「사랑에서 주무세요。그런데 웬일이세요、이러게 늣게？」

하는 대답에 혜련은 대문을 열엇다。

「아저씨 계서요？」

하고 혜련은 은주에게서 몃걸음 떨어저서 중문쪽으로 비켜선다。

「아저씨 좀 깨우세요。급히 엿줄 말슴이잇스니」

「가게에 도적이 들엇서요？」

「아니오」

하고 은주는 하늘을 바라본다。

혜련은 어디서 핏비린내가 나는듯도 하고 문임이가 어디로 나가서 늣도록 안들어오는것도 수상히 여기면서、

「문임이 보셧서요？」

하고 은주를 처다보앗다。

「네。어서 아저씨 좀 깨우세요」

혜련은 사랑뒷문으로 갓다。은주는중문터에 서잇섯다。

「아버지、아버지、저은주씨가무슨 급한 일이 잇다고 오셧서요」

하는 소리도 들리고、

「응、은주가？ 은주가 왜？그런데 문임이 들어왓니？」

「아직 안 들어왓서요。」

「그럼 어딜 가서 그러케늣게잇서？ 어디 갓지 몰라？」

하고 김장로가 조리는 소리로 회를 내는것도 들렷다。

은주는 부르기를 기다리지아니하고 일부러 구두ㅅ소리를크게 내면서 사랑 뒷문으로 가서、

「은줍니다」

하엿다。

김장로는 혜련이와가티 은주가 온것이 도적때문인가고 의심한 모양이엇다。

「들어가 엿줍지오」

「이리 들어와」

은주는 문을 열고 김장로의 방에 들어갓다。혜련은 문밧게서 엿듯고잇섯다。

「그래 무슨 급한 일이란말이냐？」

「아저씨 이문임이허고 혼인허시랴고 하서요？」

김장로는 가슴이 뜨끔햇다。김장로는 혜련의 입에서 문임은 벌서 은주와서로 허한 새이니 단념하라는 말을들은 까닭이엇다。

「그러타。오늘 혼인청첩까지 다 발송햇다。그래서 어떠란말이냐」

「이문임은 저와 사실상으로혼인을 한계집입니다。」

「무어？무어이 어째」

김장로는 그런 말을 처음듯는다는드시 터럭 회를 내서어성을 놋튼다。

大懸賞付特賣

特許十餘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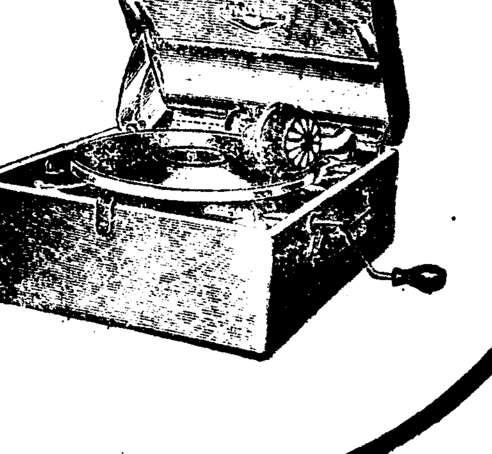
パラゴン

世界に誇るパラゴンの音色

優秀新型發賣
記念大サービス

一等 金百圓也

第一二五号



規定 パラゴン蓄音器優秀新型 第一二五號포-타풀一臺 買上時에左의抽籤券壹枚進呈

期間 自十一月五日 至十二月二十日 期間中에라도多數인境遇에는申込順으로〆切함

申込 近處特約店又는弊店으로直接申込하시라 代金引換인때는契約金으로써定價의半額을先送하시라

空籤업合 三百臺 壹組

一等 一〇〇圓 (二口)
二等 七〇圓 (三口)
三等 三〇圓 (五口)
四等 一〇圓 (二〇口)
五等 五圓 (三〇口)
六等 パラゴン蓄針(千本) 二四〇口
空籤업合

PARAGON TRADE MARK REGISTERED

朝鮮一手大賣捌元
京城府古市町十九番地
青木商會
電話本局②三五六六番
振替口座京城二四五六五番

野口財閥의三次巨彈!
三個大貯水池形成 廿二萬키로發電!
工費만이七千七百萬圓의巨額
虛川江水電工事具體案

【咸興】야구찌(野口)재벌의 제삼차폭탄적수전사업인 풍산군일대를차지할 허천강수전공사(虛川江水電工事)는 이미수개월을두고 용지매수에 주력한결과 요즈음에 이르러서는 매수도 거의종료되엿슴으로필경공사착수의첫거름을 드듸게되야 최후적구체안을 결정하얏다 즉 황수원(黃水院)강상류인 허천강(虛川江)을황수원리(黃水院里) 내중리(內中里) 리파리(梨坡里)의세곳에서막어 세개의 큰저수지를형성(形成)하야 취입(取入) 방수(放水)구는 각각여섯군대를 설치한다는데 이에대한 총발전력으로물경 이십이만사천「키로왓트」「공비(工費)총액은 칠천칠백만원의 거액에달한다 그런데 삼제언(堰堤)과저수지의면적은

黃水院堰堤六二米 貯水池千八百二十萬方米
內中里堰堤一三八米 貯水池一一六〇萬方米
梨坡里堰堤三五米 貯水池三八〇萬方米

이라고하는대 풍산(豊山)군의산간에또한 부전호(赴戰湖)와가튼 큰인조호(人造湖)가 세개나될것이다

이러한 구체안에 의하야 공사는 느저도 명춘해빙(解氷)과 함께 착수할터이라는바 이거대공사로인하야 북선지방은 또다시왕년과가튼 일시적 공사경기에 취하게되리라한다

無産兒爲하야 夜學院을開設

【陜川】경남합천군초계면소에서는 농한기(農閑期)를 리용하야 면내에 산재하여잇는 무산아동의 문맹퇴치를 목적으로 당지보통학교(普通學校) 훈원들어더오는삼십일부터 보교강당에서 진흥야학회를하기로되엿다는데 일반은 이긔회를일치말고 만히 입학하여주기를 바란다하며 배울과목은 산술국어조선어라고한다

斤量을속이는— 惡德商人에鐵槌
家庭에서도注意할일

【平壤】립동(立冬)이지나 일기가 치워지자 각가정에서는 신탄(薪炭)준비를 하노라고 야단법석을일우고잇는데 이시기를리용하며 근량(斤量)을 속이고또는 선금을 밧고신탄을 배달하지안는등 악덕상인과 주문하는자들이 만허 손해를 당하는사람이 비일비재하다

부내교구정(橋口町)리효길(李孝吉)(三一)이란자는 부내 각처에서 신탄의주문을받고 근량을사긔한것이 발견체포되엿는데 피해자가만허 방금조사중이다

평양서에서는 시절을 리용하는악덕배들이 발호하므로각가정에서는 속지안토록주의하라고이야기하고잇다

第二次本社救濟品
衣類二千三百點
泗川郡內千餘災民에게配給
喜悅에넘친그들의感淚

【泗川】거번 공전의 풍수재해(風水災害)로인하여 비저낸 수만흔 이재민을 구제키위하야본사에서는 지난구월경에도 의류(衣類)일천오백여점을 본보사천지국을 경유하야 일반재민에게 배급하엿든데 금번재이차로 이루이천삼백여점의 다수를 수송하엿슴으로 얼마전에 본보지국에서는 당지군당국과 협의하야 본군내십개면 천여재민에게 일제히 배급하엿든데 방금동등을 압두고입고럽을것이업는 재민그들로하여금깃븜과 감격에 넘치사례함을마지안는다 하며 전긔구제품에대한 각면의 배당별은 다음과갓다고한다

▲泗川面 二〇九點 ▲正東面 一五一點 ▲泗南面 二五〇點 ▲龍見面 二五〇點 ▲南陽面 一七一點 ▲三千浦 三〇〇點 ▲杻洞面 三九六點 ▲昆陽面 一七一點 ▲昆明面 二六五點 ▲西浦面 一五〇點

平壤에도强盜
〃申告하면죽인다〃

【平壤】최근평양부내에는강도사건이 폭발적으로일어나 부민으로 하여금 전전긍긍케하고 따라 [illegible] 포도진(捕盜陣)이 엄중하게 버리어저 잇스나 사일의 [illegible]의백주강도사건으로 비롯하여 창전리(倉田里)정미업 고판조(高判祚)의집에 식도강도 사건이계속 [illegible] 소동케하엿는데 사일오후열두시경 부내교구정(橋口町)에도 복면강도가 침입하여 현금십삼원을 강탈해간사실이 오일오후에야 피해자 신탄상(新炭商)신씨(申氏)로부터의신고로 알게되여 소동중이다

사일강도사건이 엇지하여 오일에야 신고되엿는가 하는점에대해서는 강도범인이 경찰에신고하면 가족전부를 죽인다고엄포하고 나아간후 신씨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문박게나오자 대담한 강도범인은 문박게서잇다가 식도로위협하고 경찰에밀고하면 죽인다는 명령을발서 이젓는가?하고 문밧대발하여 협박을 하기때문에 쫏기어들어가 겨우 밝는날오후에야 신고한것이다

이두개의 강도사건은 범인의인상년령으로보아 동인범인것이분명하다한다

大代公普張訓導
十週勤續表彰

【德洞】평남룡강군대대면(龍岡郡大代面) 대대공립보통학교에서 지난사일 동교학부형과다수 유지들이 합동하여 동교에서게속하여 십수년동안이나 근무한 훈도 장용관(張鏞灌)씨의 근속표창식을 성대히 거행하는동시에 금시계한개와 연복장한개를 기념품으로 증정하고 성대한연회까지잇섯다한다 장훈도는 본래성격이 인후하고 아동교육에 지성을다하는 모범훈도이니만치 일반학부형간에도 칭송이 자자하다고한다 ◇…寫眞 張鏞灌氏

大衆의必需食糧 粟作의空前大豊
前年보다十五萬石의大增收
咸南農村의喜消息—

【咸興】미작(米作)맥작(麥作)등 모든농작물이 풍년을이루엇다도 에서 하날의도움인지——대중의필수식물인 조(粟)만은 실로수십년래에 보기드믄 대풍작이여서 세민들의수미를 저윽이펴게한다

도농무과의금년도 속작수확예상고를보면 오십오만삼천사십칠석으로서 작년에비하야 십오만일천팔백삼십이석 즉약삼할칠분팔리의 미증유의대풍작이다

이것은 발아(發芽)긔부터 결실긔까지 천후가 극히순조로웟든 관계라고하며 이로인하야 매년격증하고잇든 만주속(滿洲粟)의 수입은 격감되리라고한다

平南道內各炭坑에 坑夫不足의恐慌
貞栢炭坑은採炭不能

【平壤】평양부외 정백탄항(貞栢炭坑)에서는 항부의 부족으로 채탄(採炭)을 하지못하게 되는 소동을 연출하고잇다

항부가 부족해지는 주요원인은 채탄을 청부제로 맛기는단가(單價)를 떠러트린것으로 채탄사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착부(開鑿夫)가 매일한명 두명식 다라나서 하루에 적어도삼십명은 잇서야할 개착부가 이달에 드러와서는 반수에도 달하지못하야 탄항측에서는 엇절줄을 모르고잇서서 임일 최저임금 일원이십전이란조건부로항부를 모집하는중이나 여긔에응하는자가 업는 상태이다

다라나는 항부의 대부분은 위험률이 만흔 탄항안속에서작업하는것보다는 토목건축공사장이 조타하여 탄항을 긔피하기때문이다

항부의부족은 유독정백탄항뿐이 아니라 도내전부의 각탄항에서도 꼭가튼상태이여서 각탄항에서는 입부긔근으로 일대공황을 일으키고잇다

木浦에染病猖獗
死者이미四名

【木浦】목포부내에는 지난륙일현재로 장질부사환자가 십이명이나발생하야 목포경찰서위생계에서는 그방역에로력중이나 금번의장질부사는 특히악성(惡性)이여서발서이병자중 네명이나사망하엿슴으로 륙만부민은 크게불안상태에잇다고한다

本報平壤支局主催의 時事經濟問題大講演會
十一日夜於白氏紀念館
演士 本社主筆 徐椿氏

【平壤】본사평양지국에서는 십일일오후일곱시 삼십분부터 본사주필 서춘(徐椿)씨를 마지하야 시사경제문제(時事經濟問題)에 대한 대강연회를 개최하기로되엿다

여긔에서 생각하거니와 넘우도 오래동안 서춘씨의 강연을 우리평양에서는 듯지못햇든만큼 이번의 긔회는 전시내에서 큰인긔를 집중하고잇다

입장료는 이십전 평균으로되엿스며 연제(演題)는 경긔의본질(景氣의本質)이라한다

本報讀者優待— 白頭山講演·映畫
十三,四兩日於白氏館

【平壤】조선일보 본사에서 지난여름에 막대한비용과 허다한희생을 앗기지안코 우리민족의 발생지인 백두령산(白頭靈山)을 가장세밀하게 탐험한후 성산의 전모를 활동사진"필림"에 집어너허가지고 개가를 올린것은 독자제씨가 잘긔억하고 잇는사실이거니와 본사 평양지국에서는 백두성산 탐험대의 대장으로 삼십명을인솔하고 갓섯든본사주필 서춘(徐椿)씨를 마저다가 백선행긔념관(白善行記念館)에서 십삼 사량일간 오후일곱시삼십분부터, 전후삼주간 죽엄을 각오하고 험준과 무서운대풍설과 싸호면서 탐험하여 어든 귀중한 백두성산에대한강연과 영산의 전모를 그대로보혀주는영화를 본보독자를 위안하기위하여 무료로공개하게되엿다

이번의「모든」이야말로 실로천재일후의긔회라고 할것이며 이때에 독자로서 모름즉이백두령산에대한 상식을풍부히어더둘것이라한다

沙里院商工會에서
勤續者表彰式

【沙里院】사리원상공회(沙里院商工會)에서는 지난십일일오전열시에 우량점원표창식(優良店員表彰式)을 사리원공회당에서 거행하엿다는데 수상자는아래와 갓다

十五年勤續者 金快英
十二年勤續者 李明善外一人
十年 勤續者 崔致勳
九年 勤續者 金東燦
八年 勤續者 崔秉弼外二人
七年 勤續者 吳成德外十二人

甕津에海藻頻凶産
七割減의怪現狀
營業漁民生計極困難

【甕津】황해도옹진군해안에서는 생복(生鰒)과 해파리(海月)가 년년이 풍산되여멀리남쪽 제주도(濟州島)와 목포(木浦)등지에잇는 어민들까지 와서만흔 리익을보아왓스나 금년에는 작년에비하면 칠할이나감소되여 당업들의 생활은 극히곤난하다는데 원인은 금년일긔가 불순한때문이라고한다

平元線促進運動
平壤商議所에서

【平壤】금월십일부터 양덕(陽德)까지 개통을보게되는 평원선(平元線)의금후의 공사에 대해서는 평양은 물론 원산(元山)방면에서까지 큰주목을 끄을고잇는데 철도국에서는 거의전세력을 만포선(滿浦線)에 집중하고잇는관계로 소화십륙년에나 전통을보게로되엿고 명년도예산에는겨우 측량비(測量費)를 계상한정도에 머저젓다

이대로 진행하야나가는 소화십륙년에 개통할수잇슬지도 의문시되므로 평양상공회의소에서는 가급적 급속히 평원선의 개통을 보도록해달라는 촉진요구를 할모양이라한다

【水原】지난십일일부터 개최된 모사편물강습회(毛絲編物講習會)는 사계에일홈노픈 서울 정일신(鄭一信)배상명(裵祥明)량녀사를초빙하야 대성황리에서 진행중이라한다

毛絲編物講習

公州高普校擴張
寄附金募集活動
募集認可이미交附

【公州】충남공주고등보통학교은 동창이 협착한관계로 당교후원회 발긔로 일반유지를망라하야 교지(校地)와운동장 확장긔성회를 조직하고 교지확장비 이만오천원을 모집하기로 결정된후 자진하야 의연금이 답지한다함은 당시보도한바어니와 긔부금모집에 당국의허가를요함으로 긔성회역원은 긔부금모집허가원을당국에제출하고 고대하든바 지난시월이십일에 허가가나와서 지난륙일오후두시경에 당교회의실에서 긔성회역원회를열고 각군에산재한 역원에게 시급히 긔부금모집에 착수할것과 당지역원도 총활동하야 긔간내로 액모예정집에 적극적활동하기로 하엿다는데 모집은 약팔천구백삼십오원에달하엿고 군별로 예정모집금액과 신입상황을보면 아래와갓다

郡名	寄附豫定額	寄附申込額
公州	一〇,〇〇〇圓	[illegible]
論山	四,〇〇〇	[illegible]
扶餘	一,六〇〇	[illegible]
靑陽	一,五〇〇	[illegible]
禮山	[illegible]	[illegible]
洪城	[illegible]	[illegible]
瑞山	[illegible]	[illegible]
保寧	[illegible]	[illegible]
舒川	[illegible]	[illegible]
唐津	[illegible]	[illegible]
牙山	[illegible]	[illegible]
大德	[illegible]	[illegible]
天安	[illegible]	[illegible]
燕岐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興甫傳公演」(十一月六日부터 五日間東洋劇場에서)
朝鮮日報讀者優待券
入場料 階上九十錢 階下七十錢 을 七十錢 五十錢으로
一人一枚

어서種痘하오 不然이면罰金

【平壤】평양부에서는 지난달에 추긔종두를시행햇스나 요종두자(要種痘者)로서 종두를밧지안은자가 일천사백명에 달하엿스므로 다시종두를시행하고 공회당에서 재종두를사오랑일에 시행햇다 그래도 종두를밧지안흔자가 만허 방금조사중인데 종두를밧지안는자는 단연고발하여 처벌키로되엿다한다

八十歲以上의 高齡者敬老會

【平壤】인간칠십은 고래희라고하지만 평양부내에는 팔십세이상의 고령자가 이백여명에 달하는터이다。평양부내에서는 경로사상을 고취하기위하야 구일오전열시부터 공회당에서 경로회(敬老會)를 개최키로되엿다한다

南旭町普校移轉을
二部府會員反對
府內施設을府外移轉은不可

【大邱】대구남욱정공립보통학교(南旭町公普校)를 부외비산동(府外飛山洞)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여 부의원소유지까지 전부매수하엿는바 이에대해 부형대회를 소집하고 절대이전반대결의를하야 부당국에 진정한사실은긔보한바이다

이에 일반부형측과 부당국측은 의견이 상속되여 부형측의 공긔는 점차로 악화하는중이나바 최근에잇서서는 절대로 침묵을 지키여오든 제이부부회원(第二部府會員)들도 침묵을깨트려부내시설(府內施設)을부외로 옴기여간다함은 불합리적이라하야 부형측과결합하야 괴색이 농후하다하여 근근이부부회원들은일치행동으로써 반대의 아우성을 리고저 방금 동분서주중이라는데 일반은 사건의전전을 더욱주목하는중이라한다

康翎半島民蹶起
引込線敷設運動
爲先貨物取扱所、電灯架設熱望
有志會合懇談會開催

【瓮津】조철해옹선 부설에 관하야 강령반도철도 긔성동맹회의 실행위원 리석룡(李錫龍) 권긔정(權基正) 일야(日野) 원신(原信) 조규삼(曹圭三) 강향량석(江鄕良碩)등 오씨가 지난오월이십륙일에 황해도당국을 방문하고 부민면천상리 천상동(泉上洞)에 정거장을설치하고 그곳으로부터 강령까지의 연장선을 부설하여달라고 진정하고 이십칠일에 상경하야 이십팔일에는 철도국과 조철당국을 방문하고 가튼 내용의 진정을 하고 나려왓다함은 그당시에 보도한 바어니와 취야역에서 강령으로 돌려놋차면 소치고개에「턴넬」을 뚤어야만 될것이니 이턴넬에대한 공사비를 요하게됨으로부득이 취야역에서 마산을으로 직통하게되도록 방금공사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강령반도에서는 긔한바와가티 인입선(引込線)의 부설운동이 맹렬하고 그와동시에 진정까지 잇섯슴으로 각관계당국에서도 량해한바가 잇서서 정거장을 마산면 로호리에 설치하라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팔천여원의 손해를보고 부민면천상리(泉上里)로 정거장을 옴겨가게되엿다고한다 그럼으로 몃칠전에 강령반도의 유지자대표수십명이 부민면회의실에 회합하야 불원한장래에 강령까지 인입선의 부설촉진운동으로 강령읍에다가 우선조철직영화물취급소(朝鐵直營貨物取扱所)를 설치해달라는 진정을하기로 결정되얏다는바 이에대하야 조철당국에서도 강령반도의 농어촌에서 산출되는 해륙산물의 판로계획에 대하야 가장 중요성을 띄고 잇슴으로 곳이것을 승인할것으로 일반은 커다란 긔대를 가지고 잇다한다 그리고강령읍내에서 적상리 정거장까지 이등도로의 신축공사를 금년내로 실시하기로 결정하얏다하며 전등가설에 잇서서도 오백등까지는 가설할 가능성이 잇슴으로 벌서신입서를 바더서 회사당국에 제출하얏다는바 래년봄에는 강령에도 전등이 점화되리라고한다

地方人事

▲裵根守氏(專賣局彥陽販賣所長) 新任人事次同上
▲權泰相氏(前專賣局彥陽販賣所長)靑松販賣所長榮轉人事次本報彥陽支局來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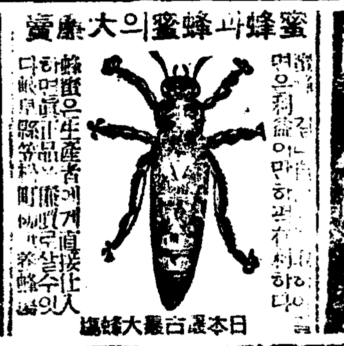
大量商品窃盜
行商準備타被逮

【平壤】련달러일어나는 강도사건의 범인을 잡으려고 삼엄한 포도진(捕盜陣)이 벌려저잇는 최근에 역시 도적의 발자최는 끈치지안코잇다 평양부내서문통(西門通)화신백화점(和信百貨店)에는 륙일오후 일곱시삼십분경에 도적한명이 륙층한구석에 숨어잇다가 폐점하기를기다려 이층 삼층 사층 오층에서 양복(洋服)네타이만년필(萬年筆)양화등오백여점을 대량절취하여 큰「트렁크」두개에 너허가지고칠일오전 다섯시경에 뒷울타리를넘어다라나든순간 숙직원에게 발견되여 일대란투끗테 붓잡히어평양서원에게 넘기엇다 취조한결과 이대담한 범인은 평북삭주(平北朔州)출생의홍순서(洪順瑞)(二二)로 절취한물품을가지고 행상(行商)을하면서 다른지방에서 절도영업을 하려든것이발각되엿다한다

光州 南朝鮮씨름大會

▲日時 十一月十一、二兩日午前十一時
▲場所 光州公設運動場
◇主催 光州基督青年會體育部
◇後援 朝鮮日報光州支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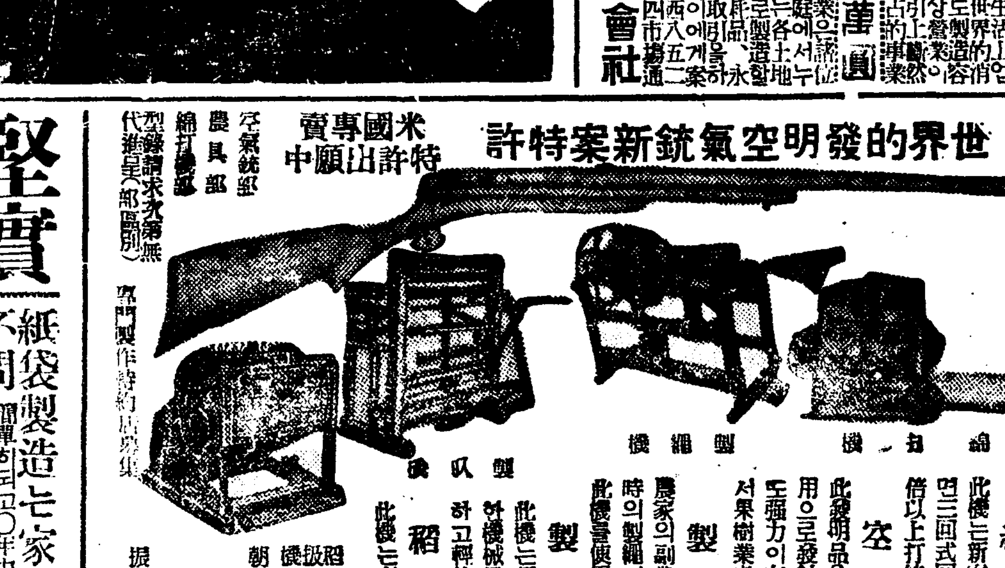
平壤支局二大主催
△時事經濟問題大講演會
十一日夜白善行記念館에서
演士 本社主筆 徐椿先生
△白頭山探險講話·映畫
十三、四兩日於白氏記念館



漢城銀行

信用잇는最高社會的氣風잇는大事業組織
조흔家庭工業
第一
第二 參拾萬圓
內外貿易株式會社

世界的發明空氣銃新案特許
米國專賣特許出願中



合名會社 利善工場
電話一〇九番
振替京城一四七八六番

堅實職業
紙袋製造는家庭에서男女不問 確實
引受
太陽社營業部

羊皮
中國特産羊皮大賣出
◎小羊皮定價表
普通品 一枚金一圓四十錢
中品 一枚金一圓三十錢
上品 一枚金一圓五十錢
特上品 一枚金二圓
◎大羊皮定價表
普通品 一枚金一圓
中品 一枚金二圓三十錢
上品 一枚金二圓五十錢
特上品 一枚金二圓八十錢
◎馬羊皮定價表
普通品 一枚 金一圓
中品 一枚 金一圓二十錢
上品 一枚 金一圓五十錢
◎婦人用背子갓저고리定價表
小羊皮製背子普通品一件金四圓五十錢
同 中品一件金五圓
同 上品一件金五圓五十錢
大羊製背子普通品一件金三圓
同 中品一件金三圓五十錢
同 上品一件金四圓
馬羊皮製背子普通品一件金三圓五十錢
同 中品一件金四圓
同 上品一件金四圓五十錢
小羊皮製갓저고리普通品一件金十五圓
同 上品一件金十七圓
大羊皮製갓저고리普通品一件金七圓
同 上品一件金八圓
馬羊皮製갓저고리普通品一件金八圓
同 上品一件金八圓五十錢

羊皮以外에 オバー襟用水獺皮狐皮水皮線各種毛皮類를 全部具備하얏사오니 嚴冬에防寒을 豫備하시라면 多少를不拘하시고 下命하시오 代金引換酬應先金送料負擔
毛皮各種帽子製造元
內外各種毛皮 製造加工染色 毛衣製造一切 防寒用具一式
朝鮮新義州府驛前
金滿商行
振替京城一五六四六番
電話略號(キン)又(긴)